1. 자기소개

임베디드 분야를 지원한 임동희입니다.

STM32F4 보드를 주로 다루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간과하기 쉬운

전기 지식 기초 및 기계 구조를 융합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1. 지원 동기

제 취미 생활과 열차의 시스템 개발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미로 거미형 4족 로봇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로봇에도 후에 사람이 탈 수 있기 에 안정적인 운행을 요구하는 열차의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족 로봇은 CAN통신, ADC 제어를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 외에 STM32 개발을 하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차별화된 본인의 강점

제 강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할 때 자세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영향을 주어서 알 때까지 학습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것을 학습할 때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다른 업무나 생활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꾸준히 생각합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새로운 것이 쌓이게 되면 어떠한 일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픈소스와 데이터시트를 비교하고 라이브러리를 재구성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성격의 장단점
2. 성공 경험

저는 회로를 직접 설계하고 GPIO 제어를 하여 프로젝트 중간보다 크기를 50% 감소시키는 결과로 ICT멘토링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여성들의 월경을 체크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프로젝트였고 크게 혈흔을 카메라로 확인하는 머신러닝 파트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을 위한 장치 제어 입출력 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중간에 하드웨어 파트를 맡게 되었고 그 때까지 진행된 것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설계자와 토론하여 전기 기판을 기존 사이즈의 1/2 배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머신러닝 파트와 프로그램을 함께 작성하여 머신러닝 데이터 결과값으로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경험은 저에게 임베디드 개발은 소프트웨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